

음악교육동향*

음악심미교육연구회 : 음악교육의 본질을 탐구·실천하는 모임

김기수(진주교육대학교 교수)

역사적으로 부흥을 이루었던 많은 나라들은 ‘품성 함양의 가능성’이라는 인간 교육적 가치 때문에 음악을 기본교육으로 실시해 왔다. 그것은 첫째로, 음악교육이 다양하고 질 높은 음악경험을 통해 사람에게 의미와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력과 이해력을 높이며, 정서적 만족감과 고귀한 정신을 고양하게 함으로써 바른 품성을 갖게 하고 개인적 완성을 이루게 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둘째로, 음악경험이 민족이나 사회의 전통을 보전하는 길이 되고, 시대 간, 세대 간의 문화적 소통과 지역 간, 국가 간의 문화적 이해에 유용한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조화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예술교과들에서 이상적, 실용적 가치보다는 현실적, 실리적 가치에 비중을 두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음악교과의 인간 교육적 가치는 도전과 격동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 교과로서의 당위조차 위협받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 고도 문명의 시대이기 때문에 휴머니즘과 창의력이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문화와 감성의 시대에 우리의 교육이 더욱 주력해야 할 일은 예술교과를 통해 청소년들의 가슴에 바르고 아름다운 심성을 기르고 심미성과 창의력을 극대화하는 일이다.

음악심미교육연구회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주목하는 동시에 어느 시대와 지역과 상황의 음악교육에서든 변함없이 견지되어야 할 ‘음악교육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탐구하기 위해 결성된 모임이다. 음악교육의 근본, 즉 음악교육의 뿌리와 본체는 어떤 것이며, 음악에서 만날 의미와 아름다움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이며, 자신의 삶속에서 의미 있는 음악경험을 지속적으로 이루도록 어떻게 이끌 것인가를 연구하는 모임이다.

이 모임은 2002년경에 음악교육의 철학적 근원에 관심을 가진 몇몇 교수와 교사들의 작은 토론회로 시작되었다. 후에 ‘심미적(審美的) 관점’에 근거를 두고,

* 서평 또는 논문평, 콜로키움 및 학술대회 보고, 연구 동향 등을 소개함.

또는 ‘심미적 접근 방법’을 적용하여 학위 논문이나 연구 논문을 준비하던 교육자들이 모임에 참여하면서 회원이 늘어났고, 현재 8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본회는 음악교육철학연구분과, 교재곡개발연구분과, 지도방법연구분과, 기타 음악교육관련분과(음악이론 및 현장교육)로 구성 운영되며, 음악교육 관련 교육학, 철학, 미학, 심리학, 사회학 등을 고찰하여 이론적 체계를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교육에 적합한 악곡을 작곡하거나 선정하고, 이러한 교재곡을 현장에 적용 시킴으로써 이론과 실재를 통합 및 융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피드백을 함으로써 학문적 및 실제적으로 음악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회의 운영은 2007년 이전까지는 매년 1~2회 정도의 정기모임(겨울방학, 여름방학)을 통해 각종 연구물을 발표하는 세미나를 열고 서로의 견해와 음악교육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였다. 개인의 논문 또는 수업 자료 등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고, 새로운 음악교육 동향 등을 전달 및 제공 받는 기회를 가졌다. 2007년 초 정기모임(겨울방학)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인터넷 카페 ‘또보미’(http://cafe.daum.net)를 개설하고 회원들의 각종 연구물 및 현장의 음악교육 소식, 회원들의 근황 등을 게재하여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보다 빠른 정보 공유를 위해 ‘또보미’ 밴드를 만들어 회원들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다.

현재 한국음악교육학회의 산하단체인 음악심미교육연구회의 회원들은 음악교육학회에서 실시하는 여름학술대회와 각종 연구발표회에 적극 참여하여 발표의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구회에서 정리되는 내용을 널리 공유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학회의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음악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힘쓸 것이다. 그리고 음악교육을 이끌어온 선배 교육자들의 견해를 널리 수용하고 현장의 젊은 회원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위기에 봉착한 음악교육의 국면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로써 본회는 음악의 미적 질을 탐구, 경험하면서 기본과 원리를 공부하고, 감성과 오성과 품성을 갖추는 자아완성으로서의 심미적 이성인을 육성하고 조화로운 공동체적 심성의 함양을 돕는 음악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건설과 민족의 중흥, 인류의 공영을 이루자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자 노력할 것이다.